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11 월 3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세 개의 로체스터 빈곤퇴치 기획에 1,600 만 달러 가까이 되는 지원 발표

보조금 지원 상대는 먼로 커뮤니티대학 인력개발 센터, 성공적인 성인 멘토링을 위한 멘토 파일럿 프로그램 및 힐사이드 직장-학문 연결 프로그램의 확장인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의 성공적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인 “핑거호 포워드”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핑거호 지역의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이스트맨(Eastman) 비즈니스 파크에 있는 먼로 커뮤니티대학(Monroe Community College, MCC)의 새 핑거호 근로자 개발센터(Finger Lakes Workforce Development Center, FWD Center), 로체스터-먼로 안티 빈곤 기획(Rochester-Monroe Anti-Poverty Initiative, RMAPI)의 “성공을 위한 멘토(Mentors for Success)” 새 파일럿 프로그램 및 장기적인 힐사이드 직장-학문 연결(Hillside Work-Scholarship Connection) 프로그램 등 로체스터(Rochester)에 기반을 둔 세 개의 프로젝트에 1,600 만 달러 가까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처음으로 핑거호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학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경력 개발을 최우선 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가리는, 준비된 기획인 “원 커뮤니티플랜(One Community Plan)”을 통하여 지원받은 세 개의 프로젝트입니다. 빈곤퇴치는 여러 가지 “번영으로 가는 길(Pathways to Prosperity)”을 지원하는 핑거호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전략 기획의 중점 목표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은 이 시대의 가장 복잡하고 보편적인 도전으로서 성공적인 해결책은 반드시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커뮤니티에 필요한 자원과 도구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런 투자는 빈곤의 울타리에 갇힌 수많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뉴욕시민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게 하여 이들 가정이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핑거호 근로자 개발센터

이스트맨 비즈니스파크에 있는 먼로 커뮤니티대학의 핑거호 근로자 개발센터(또는 FWD 센터)는 파크에 있는 회사들이 수요하는 에너지, 바이오 소재, 기능성 필름 및 광학 등 첨단기술업에 알맞은 21 세기의 근로자들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합니다. FWD 센터의 교육과정에는 메커트로닉스, 정밀 금형, 유압기술,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등과 같은 분야에 적합한 교육을 포함하며 기업가의 기질, 효율적인 학생 교육 소통 능력, 팀워크 및 비판적 사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이 센터에서는 2,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배양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강화된 지원 고리의 가치로 지역에 9천만 달러의 경제 혜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의 개발 첫 단계는 6백만 달러의 SU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20 보조금 수상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나머지 단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540만 달러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프로젝트는 최근에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아메리카의 약속(America's Promise) 기획의 6백만 달러 보조금과 JPMorgan Chase 은행의 민간 투자금 32만 달러를 활용하여 우수한 학생과 프로그램을 위한 수업료와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성공을 위한 멘토

2년간의 성공을 위한 멘토 파일럿 프로그램은 로체스터-먼로 안티 빈곤 기획에서 빈곤 수준 이하의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성인들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최우선 기획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 보조금으로부터 150만 달러 지원받고 이에 상응한 민간 추가 보조금을 15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멘토들과 협력하여 이들의 사회 경제적 수요를 판단한 후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합니다. 직원들도 지역사회, 학교 및 기관들을 찾아가서 후보자들이 로체스터-먼로 안티 빈곤 기획의 주요 이웃들과 함께하기를 권고합니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성적 올리기, 자신들의 신용도 향상, 교육 또는 직업 기성 향상 혹은 저금 증가하기 등 본인이 정한 목표에 도달한 상황을 매달 보고하면 현금으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패밀리 센터는(Catholic Family Center)대 로체스터의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위한 행동(Action for a Better Community and the Community Place of Greater Rochester)에 협력하여 EMMA (East Main, Mustard & Atlantic Avenue), Beechwood 및 Marketview Heights 에 사는 300가구를 시작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힐사이드 직장-학문 연결

힐사이드 직장-학문 연결 프로그램은 최근 로체스터 지역에서 매년 7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멘토링 서비스와 아르바이트 직장에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 보조금으로부터 300만 달러 지원받고 이에 상응한 민간 추가 보조금을 30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향후 2년간 로체스터 동부에서 매년 500명의 학생을 증가하여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입니다.

힐사이드 직장-학문 연결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학업 지원, 대학 입학 준비 및 삶과 직업 기성 개발을 포함한 지원 서비스망을 통하여 그들이 인생의 성공을

체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서비스는 청소년 지원 전문가들이 학생과 그들의 가족 및 교사와 협력하여 참여자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것을 돕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민간 보조금은 성공을 위한 멘토와 힐사이드 직장-학문 연결 프로젝트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 보조금에 대등하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타 잠재적인 안티 빈곤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새로운 번영 보조금(Prosperity Fund)을 통하여 간소화할 것입니다. 이 번영 보조금은 대 로체스터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Greater Rochester)를 통하여 관리되며 웨그먼스 패밀리 기금과 샌즈 패밀리 기금의 상당한 지원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엠펙라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회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인솔하에 본사의 유익한 서비스에 대한 계속된 투자는 우리가 핑거호 포워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경제 기회에 참여할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FLREDC 공동 회장이며 먼로 커뮤니티대학의 총장 Anne Kres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정부와 Cuomo 주지사님의 핑거호 근로자 개발센터에 대한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협력은 고학력이 필요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대학과 핑거호의 고용주 사이의 이와 같은 협력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발전하고 우리 지역에 남아서 그들 가족의 삶을 위한 경제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스킬 차이를 줄이고 강력한 지역경제를 수립합니다. MCC 는 하루빨리 번영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FLREDC 공동 회장 및 웨그먼스 푸드마켓 CEO Danny Wegm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퇴치는 지역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실제 수요를 위하여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노력에 계속하여 지원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은 포괄적인 솔루션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체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치할 수 없는 빈곤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의 가정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Joe Robach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우리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모든 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은 우리 전체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Rochester 시장 Lovely Warre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업스테이트 뉴욕에 사는 가정들의 우상입니다. 이 보조금은 성공을 위한 멘토와 힐사이드 직장-학문 연결 프로그램 및 새로운 핑거호 근로자 개발센터를 도와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직장을 찾고 우리 이웃과 커뮤니티의 단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대한 최근의 투자 덕분에 우리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주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로체스터와 같은 도시의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카운티 행정장관 **Cheryl Dinolf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자 개발은 우리 행정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핑거호 지역경제개발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원 커뮤니티 플랜’ 프로젝트는 우리가 실제 직업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빈곤 가정들을 구출하는 우리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원 커뮤니티 플랜’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지원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패밀리 센터장 및 **CEO Marlene Bessett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로체스터에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여 이런 사례를 전체 지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다른 도시에서 성공한 멘토링 모델을 현지 수요와 커뮤니티 반응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다른 한 측면은 전체 단체들의 밀접한 협력입니다. 우선은 우리의 실행 파트너, 대 로체스터의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위한 행동과 시장의 혁신 및 전력 기획 사무실 그리고 더 광범위한 공급자, 교육자 및 고용주입니다. 성공하려면 우리가 단체를 이끄는 영향이 필요합니다.”

힐사이드 직장-학문 연결 프로젝트 단장 **Augustin Melendez**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힐사이드 직장-학문 연결 프로그램은 빈곤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의 졸업률을 높이고 대학과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준비를 돕는 데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지원은 로체스터 지역의 수많은 학생이 우리 프로그램의 증명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 로체스터 유나이티드 웨이 회장 겸 **CEO Fran Weisberg**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 커뮤니티가 빈곤을 퇴치하는 노력과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현지 주민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체스터의 커뮤니티가 함께 노력하여 더 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탈출하여 자립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협력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우리는 로체스터에 이런 중요한 자금들을 확보하여 빈곤을 향한 선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체스터-먼로 안티 빈곤 기획 책임자 **Leonard Brock**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로체스터에 대한 지원과 노력에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빈곤을 줄이고 자립하는 가정들을 늘리는 우리의 노력을 점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0 개 이상의 기업과 수천만의 지역 주민들이 RMAPI 관련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가 성인 멘토링을 통하여 빈곤에 빠진 현지 주민들에 대한 우선 작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업무에서 나타난 최우선 사항에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가정의 수입을 돕고 적합한 임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빈곤을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계획을 보완합니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광학,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성장 및 투자를 위한 장소로 Rochester, Batavia, Canandaigua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뉴욕주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된 5억 달러의 투자금은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까지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로체스터-먼로 안티 빈곤 기획에 대한 소개

로체스터-먼로 안티 빈곤 기획(Rochester-Monroe Anti-Poverty Initiative)은 Cuomo 주지사의 로체스터 안티 빈곤 전담반과의 협력하에 빈곤 퇴치를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이 기획은 단체 영향의 모델을 채택하여 2016년에 설립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빈곤 퇴치 기획의 기초가 되어 주 전역의 빈곤 지역에 동일한 커뮤니티 기반의 노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